



부와 재산에 대한 칼빈의 견해

--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

이환봉 교수

시작하는 말

“빈(貧)”과 “부(富)”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간격 속에 언제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빈자는 부자를 질시하고, 부자는 빈자를 홀시 한다. 그리하여 개인과 민족, 그리고 나라 사이의 빈부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고 마침내 현대 산업사회의 “부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를 가져올 것만 같아 보인다. 그 절망적인 간격을 메우고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기적은 정말 일어 날 수 없는 것인가? 가난의 질투가 감사로, 부의 경멸이 봉사로 바뀌어 질 수는 없을까? 그 기적은 정말 정치적 사회혁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사회학적 기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기적인가? 우리는 이 오래된 문제를 앞두고 성경에 기초한 칼빈의 입장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칼빈은 400년전 인물이었다고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명료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 시대의 아들로써 칼빈이 오늘 첨단 기술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그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과 질문들에 모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칼빈은 “영원한 복음”(계 14:6)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 찌라도 인간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들 속에서 그 자신의 시대와 오늘 우리시대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리는 칼빈의 전 신학체계와 저술들 속에 나타난 부와 재산에 대한 그의 견해를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적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새롭게 확인하고자 한다.

1 창조

칼빈은 자신의 여러 저술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naturae ordo)에 호소하여 인간 삶의 올바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부성애적인 배려로써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와 풍요를 그 창조세계 속에 먼저 공급하시고, 그 후에 비로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하여 그 곳에 살게 하셨다.¹⁾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은혜

1) **Comm. on Genesis 1:26, Calvin's O.T. Commentaries: Genesis, vol.I** (trans. J. King:



의 선물로 주신 그 자연 만물의 풍요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다.²⁾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을 섬기게 하셨듯이 이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연의 풍요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섬기도록 정하신 것이다.³⁾ 이러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번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는 “창조주가 주신 법칙” (자연의 질서)에서 이탈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불행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⁴⁾ 또한, 창조 속에 나타난 이 “자연의 질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조화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 칼빈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가정을 다양성의 조화와 상호 봉사의 질서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형으로 보았다.⁵⁾ 그리고 칼빈은 교회 안에 주어진 영적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충족적 존재일 수 없으며 다만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⁶⁾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칼빈은 서로를 향한 이러한 봉사의 의무를 기독교 강요의 제 8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8계명은 소극적으로 남의 돈과 재산을 폭력과 속임수로 도적질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봉사의 의무를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이웃의 어떤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서 정죄하고 있다.⁷⁾ 다시 말하자면 나의 가난한 이웃은 나의 물질적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분 것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⁸⁾ 칼빈은 이러한 이웃의 권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빚을 성실히 갚아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내가 이웃의 그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에게 나누어 주시고자하는 그 이웃의 몫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

Grand Rapids: Eerdmans, 1948), p.96. cf. **Comm. on Psalms 8:** .

2) **Inst.**, 1.14.2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T. McNeill, trans. F.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3) **Serm. on Ephesians 1:19-23,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pp.124-125.

4) **Inst.**, 1.3.3., “하나님 지식이 앞서 말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것은 쓸데없는 것이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사상과 행동을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창조주가 준 법칙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인간은 어떤 점으로 보아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점에서 불 때 짐승보다 훨씬 더 비열해진다.” cf. **Serm. on Job 22:** .

5) Wallace, R.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Oliver & boyd, 1959), p.104 : “이 자연의 질서 -그것의 모형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은 그것을 지키도록 창조되었다 - 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질서 있는 사회 생활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의 최상의 모형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 관계이다.” cf. **Comm. on Genesis. 2:18.**

6) **Comm. on 1 Corinthians 12:-14:** , **Calvin's N.T.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rans. J.W. Fraser,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3), pp.258-310.

7) **Inst.**, 2.8.45-46.

8) **Inst.**, 2.8.45 : “그(8계명)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그 자신의 분 것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롬13:7). 요약하여 말하자면 그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자신의 소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Inst.**, 2.8.46. : “우리들 각자는 의무로써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그 빚을 성실히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¹⁰⁾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불해야 할 빚진 것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서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실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그대로 다 소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도적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빼앗는 자도 도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 남에게 당연히 나누어주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자도 도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그 모든 부와 재산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간들에게 각기 다른 분량으로 분배해 주셨다.¹¹⁾ 이와 같이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¹²⁾ 만약 그 청지기가 거저된 욕망과 사치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모두 낭비함으로써 집안의 모든 권속들을 조화 있게 돌보고 부양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수행치 아니한다면, 그는 실상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모든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

인간 상호간의 조화와 봉사의 자연적 질서를 잘 지킬 때 제 8계명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고, 동시에 제 8계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인간 삶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¹³⁾ 칼빈은 이처럼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일치의 관계 속에 있으며,¹⁴⁾ 그 양쪽 모두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고 한다.

2 타락

10) *Inst.*, 2.8.45. : “이 계명을 위배하는 것은 돈과 상품 또는 토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종류의 권리에까지 이른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여야 할 어떤 의무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태만한 청지기 또는 관리자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집안 일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또 그에게 위탁한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사치스럽게 낭비했다거나.... 어떤 방도로든지 그의 생명과 재산을 팔아 버린다면....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둑으로 간주되어 진다”.

11) *Inst.*, 2.8.45. :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단지 요행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만유주 하나님에 의하여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12) *Serm. on Deuteronomy 15:11-15, Sermons on Deuteronomy,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pp.584-590. cf. Inst.*, 3.7.5.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는 다만 그 청지기요 관리한 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눅 16:2)”.

13) Wallace, R.C., *op.cit.*, p.122 : “다시 유의해야 할 것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의 결과는 인간의 삶 속에서 참된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의 외형적 생활과 마음의 느낌 사이에 참된 조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율법의 첫째 돌 판과 둘째 돌판 사이에, 그리고 거룩과 의 사이에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14) *Serm. on 1 Timothy 5:4-5, Sermons on the Epistles to Timothy & Titus,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p.458 :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자연의 질서간에는 일치가 있다”.



칼빈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창조 질서의 전도(顛倒)로서의 죄와 타락의 무서운 실체를 잘 그려내고 있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친절 그리고 자비에 대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감사와 인정을 항상 강조하였다.¹⁵⁾ 그러나 아담은 모든 배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불신 속에서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의 야욕을 부채질하여 주어진 풍성한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허락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턱없이 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였다.¹⁶⁾ 이러한 “탐욕”(concupiscence)으로 마침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로 변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인간의 교만과 자기신뢰도 역시 아담의 그 탐욕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교만은 마귀의 충동을 따라 모든 인간에게 “자력 구원”의 거짓된 신화를 창조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 하였다.¹⁷⁾ 이처럼 첫 인간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다.¹⁸⁾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그 엄청난 불신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인간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탐욕과 교만에 빠져있는 부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였다. 특히 그는 야고보서 5장을 주석 하면서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초래하는 부자의 악덕들을 상론하고 있다. 첫째는 “탐욕”(2.3절)으로서 선한 일에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극단의 인색함으로 오직 부에 매달려 재물을 축적하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무자비”(4절)로서 추수한 품꾼에게 지불해야 할 삯(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음으로 그를 빈궁하게 하는 악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신 24:15)을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육축의 생명”(잠12:10)은 돌아보면서도 인간이 인간을 공홀히 여기지 않음은 실로 악인의 잔인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사치와 연락”(5절)으로서 부자들의 무절제한 과소비와 흥청망청 끝없이 먹고 마시며 떠드는 환락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약자에 대한 부자의 억압”(6절)을 지적하면서 부자들이 부와 권세로 결백한 자들을 상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공의를 짓밟고 수많은 음모를 자행하는 것은 곧 그들이 “죽음과 파멸의 앞잡이”인 것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¹⁹⁾

칼빈의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칼빈은 정당한 재산의 소유와 부 그 자체를 결코 악으로 말하지 않았다. 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공동의 이익에 대한 필수적인 공헌으로까지 간주하였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인 부와 재산을 탐욕의

15) *Comm. on Genesis 2:9, op.cit.*, p.117.

16) *Inst.*, 2.1.4. : “불신은 바로 그 배반의 뿌리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야망과 자만과 배은망덕이 생겼다. 왜냐하면 허락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턱없이 탐함으로써, 아담은 그를 그토록 부요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17) *Inst.*, 2.2.10., *Comm. on Exodus 20:17, Calvin’s O.T. Commentaries: Harmony of Exod., Lev., Deut., Numb.*, vol.III., (trans. C. W. Bingham; Grand Rapids: Eerdmans, 1948), p.188.

18) *Comm. on Genesis 3:19, op.cit.*, p.177 : “우리는 자연의 모든 질서가 인간의 죄에 의하여 전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f. H. Rolston, *John Calvin versus the Westminster Confession* (Virginia: John Knox Press, 1972), p.49 :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죄로 자신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존의 질서가 인간이 돌이켜 그 자신에 의존함으로써 파괴되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고 만다.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청렴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는 실로 질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19) *Comm. on James 5:1-6, Calvin’s 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III. James and Jude* (trans. A.W. Morrison,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p.305-308.



도구로 삼는 인간의 죄와 타락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죄인은 하나님을 감사치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강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들어 버린다. 타락한 인간은 불신 속에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들을 정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으며,²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²¹⁾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인간에게 사악의 원인이 되고 거치는 방해물과 저주로 변한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 선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웃을 온전히 봉사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칼빈은 신명기 4장에 대한 한 설교에서 모든 피조물(재물)을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다리”와 “계단”으로 표현하였다. 사다리와 계단은 인간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발목을 다치고 온 몸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전도시킨 인간의 죄와 무능을 설명하고 있다.²²⁾ 이처럼 인간의 죄가 모든 “창조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전도시켜 버렸으며,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의 본질적인 변질을 가져 왔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야고보와 칼빈이 모든 부자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다만 범죄 하여 배은망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마치 인간 자신의 것인 양 횡령하고 오용하여 오직 자신의 만족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악한 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이 야고보서 5장의 주석에서 그토록 준엄하게 정죄하는 것은 바로 “사치와 연락”으로 과소비를 일삼는 인간의 “탐욕”과 “무자비”이다. 하나님께서 흥청망청 낭비해 버리기 위해 금과 은을 주시고 또한 어리석게도 좀먹도록 하기 위해 두벌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만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선하게 나누어 사용하지 않고 사치와 연락으로 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탐욕과 무자비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산산이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악한 부자의 이러한 악행들을 피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산업과 노동으로 소유하였던지 간에,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들이 무절제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²³⁾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 이러한 아름다운 창조질서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20) **Comm. on 1 Timothy 4:5, op.cit., p.241** : “땅위의 부요는 당연히 우리의 사용을 위해 의도 되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통치권을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이후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자신의 부정함으로 더럽혀져 버렸다”.

21) **Comm. on Zechariah 2:10, Calvin’s O.T. Commentaries: Minor Prophets, vol.V, (trans. J. Owen; Grand Rapids: Eerdmans)** :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매우 관대하게 다루신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마치 부싯돌 또는 바짝 마른 바위들 위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아무런 유익 없이도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무용하게 만들어 버린다”.

22) **Serm. on Deutronomy 4: , op.cit., pp.109-176.**

23) **Comm. on 2 Corinthians 8:15, Calvin’s O.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A. Smail,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3), p.114.**



3 구속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탐욕적인 생활의 무질서와 무절제에 사로잡히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던 창조 본래의 질서의 분명한 흔적도 상실해 버렸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신의 본래적 창조의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며”,²⁵⁾ “하나님 자신이 처음에 세우신 질서를 결코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²⁶⁾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²⁷⁾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회복)하심으로써 아담 안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과 생활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혁되기 시작한다”.²⁸⁾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인 신앙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날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목적의 회복을 의미한다.²⁹⁾ 특히 칼빈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혁되는 것은 어떤 “본체의 유입”(an inflowing of substance)보다는 질서의 개혁과 회복에 있다.³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칼빈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참되게 닮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ingenium*)이 재현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³¹⁾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회와 그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질서의 가장 훌륭한 모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자에 대한 경고와 가난한 자에 대한 위로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 삶속에서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분배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칼빈은 신명기 24장의 설교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들의 손에 주어진 물질들을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보다 큰 부요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부를 알기 위해 계속

24) *Inst.*, 1.15.4.

25) *Comm. on Genesis 9:6*, *op.cit.*, p.296.

26) *Comm. on Psalms 11:4*, *Calvin's O.T. Commentaries: The Book of Psalms*, vol.I. (trans. J. And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48), p.165.

27) *Comm. on 2 Corinthians 3:18*, *op.cit.*, p.50 :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28) *Comm. on Luke 17:20*, *Calvin's 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II. (trans. T.H.L. Parker,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p.134.

29) *Comm. on Ephesians 4:24*, *Calvin's 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H.L. Parker,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4), p.191: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거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죄로 손상되어졌던 그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한다. 진실로 신자의 중생은...바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재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중생을 통하여 의도되어진 계획은 우리를 오투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에로 다시 부르기 위함이다”.

30) *Inst.*, 1.15.5.

31) *Comm. on Psalms 30:5*, *Calvin's O.T. Commentaries: Psalms*, vol.1 (trans. J. And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48), pp.488-489.

32) *Serm. on Deuteronomy 24:19-22*, *op.cit.*, p.865.



그들을 시험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부자들의 교만을 질책하시고, 또한 그 부자들에게 절제와 상호봉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³³⁾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들(부와 재산)에 감사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김으로써 그 감사를 입증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우리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신성 모독”(sacrilege)이라고 단정하였다.³⁴⁾ 그리고 칼빈은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수령인”(receivers)으로서 묘사하기도 하였다. 즉 “너희(부자)들이 나에게 속한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나의 수령인들로 임명하여 너희들에게 가서 그것을 모아 오도록 하였다”고 하였다.³⁵⁾

이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즉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물질적 봉사를 통하여 선을 행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재산)을 분배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러한 상호봉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칼빈은 신명기 설교에서 이러한 사랑과 보호를 통한 교회의 자비는 모든 국경들과 민족적, 교회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같은 돈과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시하여, 우리와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난한 나그네들”까지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신다. 칼빈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³⁶⁾ 그리고 이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불의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복수를 야기할 만큼 심히도 가증스러운 범죄임을 강조하였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상호봉사 속에서의 신자들의 유무상통을 공산주의의 한 형태로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그 당시 “재산의 공유”를 주장한 재세례주의자들을 단호히 거부하였다.³⁸⁾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재산의 개인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⁹⁾ 우리가 “각자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고전12:-14:)가 다양한 것처럼 물질 은사(선물)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다. 칼빈에게 있어 이러한 은사의 다양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에게 의존하고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와 봉사의 질서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증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새 질서의

33) **Comm. on James 2:5, op.cit., pp.277-278.**

34) **Comm. on Matthew 25:37, 40, op.cit., p.116.**

35) **Sern. on Deuteronomy 24:19-22, op.cit., p.868. cf. Sern. on Deuteronomy 15:11-15, op.cit., p.585: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자신의 수령인들이 되게 하셨다”.**

36) **Sern. on Deuteronomy 14:24-29, op.cit., pp. 569, 570.**

37) **Sern. on Deuteronomy 27:16-23, op.cit., p.932: “만약 어떤 사람이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의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실 것이다”.**

38) **Comm. on Acts 2:44, Calvin’s 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1. (trans. W.J.G. McDonald, eds. D.W. &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3), pp.87-88.**

39) **Inst., 4.1.3: “...재산의 소유권이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개인적이 되도록 인간들 사이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회복이 부분적으로는 이 지상에서 실현될 수 있으나 그 최종적 완성은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부와 재산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창조-타락-구속(회복)의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와 연관시켜 봄으로써 몇 가지의 교훈을 새롭게 확인하고자한다. 현대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질병과 구조악 자체에 대한 혁명적 개선을 주장하는 소리가 여전히 한국교회안에 자리잡고 있다. 과연 현대의 경제적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진정한 그 해결책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 현대의 경제적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질병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화와 봉사)가 파괴되고, 갈수록 빈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심화되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이다. 탐욕과 투기, 무자비와 착취, 사치와 연락 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고 있다. 오늘날 풍요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탐욕의 전면적인 장려와 죄의 급속한 전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탐욕적인 죄로 인한 빈부의 갈등의 책임을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선한 능력과 가치를 믿는 인본주의는 항상 인간 밖의 사회구조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악한 정치-사회구조의 희생양일 뿐이며,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세계관은 그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결정론적 견해는 자연히 사회 구조 혁명에 대한 대중적 요청을 고무하며 정당화한다. 구조의 변화는 바로 인간의 변화를 약속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결정론적 주장은 자연의 불변적인 자율적 법칙을 구체화하였던 물리학의 19세기 모델과 마르크스주의(또는 신마르크스주의)의 사회혁명 이론에 기초해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Heisenberg)의 양자물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이래로 모든 것은 불변하는 자율적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 결정론적 자연관과 세계관은 더 이상 견지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근래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는 사회-경제적 질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실패와 패망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사회구조의 혁명적 개선을 부르짖었던 사회주의자들은 무계급 사회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이상적 구호로 내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평등”을 참된 종교개혁적 경건

40) *Comm. on James 5:7, op.cit., pp.308-309.*: “부자들에게 임박한 재난의 이유들 중에서 그가 (야고보) 기록한 부자들의 교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한 지배를 살펴 본 후에, 야고보가 즉시 계속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심판관이 되신다면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가 능히 인내할 수 있는 실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하였을 때의 그의 의도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혼란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주님께서 모든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야만 한다.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 가운데 우주적 회복의 실체가 있다”.



의 한 표현으로 믿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강요된 완전평등을 인간사회의 경제적 질병의 해결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러한 “평등주의”는 실제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악으로 판명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에게 있어 이것은 창조질서의 다양성의 실재를 부정하려는 헛된 시도이며, 인간 상호봉사의 전제조건을 말소해 버림으로써 인간을 오직 이기적 탐욕에로 치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하지 않고서도 언제나 균등한 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질병은 사회주의자들의 완전평등의 이상이 허구임을 입증하였다. 칼빈은 재산의 불균등을 하나님의 은사(물질도 포함)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면서 인간 상호봉사와 조화의 근거와 의무로 해석하였다. 사실상 현대의 경제적 질병은 이러한 상호 봉사와 조화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그 의무 수행을 거절하는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혁명”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결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⁴¹⁾ 그래서 앞서 살핀 바대로 칼빈은 권세를 가진 부자에 대한 그토록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혁명을 선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악한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에 의한 행복한 사회건설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창조질서의 전도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최상의 구조와 체제를 이기적인 탐욕에 따라 오용 및 남용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늘 교회와 신학이 세속적 인본주의 즉 마르크스(Marx)의 사회주의 이론에 약간의 종교적 설명을 가미함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피상적이며 세속적인 해결만을 반복하여 주장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값싼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과의 타협을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앞세우며 노래할 때, 그 교회의 메시지는 활기를 잃어버리고 신뢰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마침내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칼빈이 주장한 바대로 현대의 경제적 무질서와 혼란은 사회구조적 질병 이전에 인간의 질병이며, 그 근본적인 변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참된 경제질서의 회복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참된 창조질서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갱생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외적 수단으로 호소하는 어떤 사회적 체계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공평한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체계들은 오히려 빈부의 간격을 더욱 가공스럽게 심화시켜 왔고 마침내 현대 산업사회의 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칼빈의 윤리도 하나님의 인간갱생과 머리되신 그리스도안에서 창조질서의 회복에 대한 성경적 윤리이다. 따라서 칼빈에게서 현대의 어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체계의 증언을 찾으려는 자들은 다만 헛수고를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칼빈을 흔히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자”(Max Weber)와 “근대 민주주의의 아버

41) Wallace, R.S., *op.cit.*, p.43, Wallace는 칼빈의 마21:12의 주석과 갈5:11-14의 설교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의 성전청결을 통해서도 교회 개혁을 위한 가슴타는 열심을 갖는 것과 그 개혁을 위해 적절한 권세자에게 목청을 높여 요구할 당위성을 배워야할 뿐,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행동하는데 까지 결코 나아가서는 안된다”. cf. *Comm. on Matthew 21:12. Comm. on Acts 2:23.*



지” (Doumergue), 또는 “사회공영 국가의 주창자”로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물론 칼빈에게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근대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이 사유재산과 정당한 이자를 인정하였으나, 탐욕에 의한 재산 축적과 고리 대금업을 권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이웃을 돕고 봉사해야 할 의무의 근거로서 생각하였다.⁴²⁾ 그리고 칼빈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평등성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불균등성과 모순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사회의 불균등성과 다양성을 상호의존과 봉사, 그리고 인간사회의 조화적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평등성”만을 강조하였던 당시의 재세례파들을 “망상적인 꿈”을 꾸는 모든 사회질서의 위협적 세력들로 간주하였고, 또한 “불균등성”만을 강조하여 “탐욕”과 “탄압”과 “착취”의 근거로 삼으려는 자본주의자들도 경계하였다. 칼빈의 경제윤리는 “사회주의적”도 아니고 “자본주의적”도 아니라, 다만 “성경적”일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체계”(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를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인간갱생의 사역과 그리스도안에서의 창조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적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조화와 상호봉사의 창조적 질서를 진정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상호의존과 상호봉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의 회복을 마땅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모든 삶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조화와 봉사를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들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고아를 서럽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형제처럼 환대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거나 압제받는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자기 쓸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절약하여서, 심지어 며칠씩 금식하면서 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교회들도 참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인간은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 하여 오히려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였다. 하나님은 태초의 조화와 질서를 따라 새롭게 살아야 할 책임을 인간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본래의 뜻과 의도를 그대로 지키시려 하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억제하고 창조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번영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행위는 다른 각 사람들과 동시에 공공사회의 번영을 위한 고려 속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자와 국민들은 그리스도의 법칙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42) Cf. **Comm. on Exodus 22:25, Lev. 25:35-38, Deut. 23:19-20.**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그러나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탐욕을 따라 행함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인간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의 신앙적 회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식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위치에서 참된 봉사 와 조화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의 삶에 있어 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모든 형태(종교적, 정치적 등)의 “완전주의”는 인간의 힘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전제한 망상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우파는 정치적 좌파와 유사한 전제를 가진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순종의 회복은 끊임 없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옛 본성과의 지속적인 투쟁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칼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위해 사는 삶은 이러한 자기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⁴³⁾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43) Inst., 3.7.5.